

# 분기별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hope. recovery. wellbeing.

# 이해관계자 뉴스레터

Stakeholder Newsletter



## 살륙기 지 분 주목하십시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부 (LACDMH) 와 그 반인종주의, 포용, 연대 및 권한 부여 (ARISE) 부서는 이해관계자, 파트너,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험이 풍부한 개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다음 분기별 뉴스레터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행동 건강 소비자, 옹호자, 동료

이번 호의 주제는 '의도와 가능성: 청소년의 관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다. 이 호에서는 젊은이들이 한 해 동안 이루고 있는 희망, 목표, 비전에서 영감을 얻은 여러분의 이야기, 성찰, 창의적인 표현을 공유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번 시즌은 우리의 삶과 지역 사회에서 의도, 성장 및 새로운 가능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돌아보도록 초대합니다.

이 문제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치유, 옹호, 창의성 및 연결에 기여하는 방식을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함께 걷는 멘토, 간병인 및 파트너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함께 정신 건강 및 웰니스 자원에 대한 소속감, 지원 및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로스앤젤레스처럼 활기차고 다양한 곳에서 청소년의 관점은 회복, 웰빙 및 지역사회 보살핌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투자할 때 모두를 위해 더 강력한 미래에 투자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의 관점, 창의성, 집단적 지혜를 공유해 주신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의도와 가능성이 어떻게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기회를 확대하고, 연결을 심화시킬 수 있는지 계속 탐구해 봅시다.

*“When we invest in young people, we invest in a stronger future for all.”*

이번 호 '더 쿼터리'를 즐겁게 읽으시고, 여기에 실린 이야기와 창작물들이 여러분에게 성찰과 실천의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번 호를 읽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얻거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DMHCC@dmh.lacounty.gov](mailto:DMHCC@dmh.lacounty.gov)로 연락 주세요.



ANNA GANGEM

## 로베르토의 이야기: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

면적 조항: 이미지는 이 이야기를 작성했거나 등장하는 실제 인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로베르토에게 안정감은 한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위탁 보호를 받으며 자란다는 것은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오래 머무르지 않고 여러 집을 오가며 이동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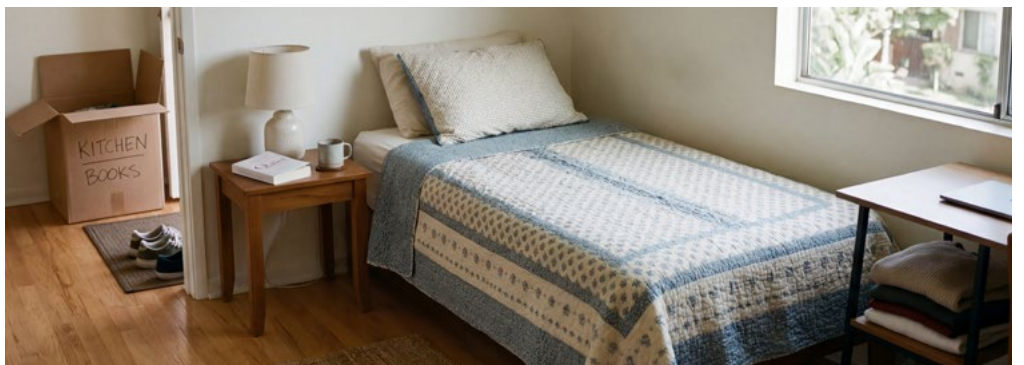
시스템 밖에서 나이를 먹었을 때, 로베르토는 안전망이 없는 성인의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의 무게를 짊어지면서 주거지를 찾고, 꾸준히 일하고, 학교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베르토님은 “위탁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은 제가 경험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룻밤을 어디서 자야 할지 몰랐고,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나 직장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다행히 그때 웰네스트가 끼어들었다. 로베르토는 케이스 매니저인 라파엘과 웰네스트 하우스링 서비스 팀의 지원을 받아 독립을 향한 필수적인 첫 걸음인 안정적인 하우스링을 찾았습니다. 그는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잘지 걱정하지 않고 학교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고 말했다.

주택 외에도 로베르토는 정서적 건강 서비스에 접근하여 위탁 관리 경험을 처리하고 치유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꾸준히 확인하고, 서류 작업을 안내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현재 로베르토는 자신과 형인 알레한드로의 안정적인 미래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Wellnest가 불확실성에서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저처럼 위탁 양육을 거의 하지 않고 나온 사람에게 웰네스트가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희망이 생겼고, 저와 제 동생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 문화를 넘나들며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저는 18살의 나이에 긴장감과 깊은 불안감을 느끼며 미국에 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 나라, 그 문화, 그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새로웠다. 저는 아직 배우고 있는 언어로 급우, 선생님, 호스트 가족과 소통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고, 이에 온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나는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거나 숨을 멈출 수 없었다.

오랫동안 나는 감정에 집중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 저는 실용성과 지구력을 중시하는 중국 전통 가정에서 자랐고,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무겁거나 불편할 때, 나는 그것을 옆으로 밀고 계속 나아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이것을 내 감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성숙해지는 느낌이었다. 책임감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삶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한동안은 이런 식의 생활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나는 빠르게 적응하고 기대에 부응하며 겉으로는 탄력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내가 대하지 않기로 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모았다. 나는 나중에 실제로 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다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들을 감쌌다. 새로운 갈등이 나타날 때마다 묻혀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고, 종종 더 강해지고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익숙한 느낌으로 돌아갔다. 나는 상황을 바로잡고, 충분히 진정시키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이 패턴에 갇히기 시작했다. 나는 반응들을 이해하는 대신 끊임없이 관리하고 있었고, 그것은 내가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감정적으로 고갈시켰다.



아주 단순한 무언가가 내 감정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내가 내 감정과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사람들이 제게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결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항상 “좋아.” 라고 대답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체크인하지 않고 자동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떻게 다르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다. 몇 년 후, 인턴십을 하는 동안 한 상사가 무심코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좋은 건

(Continued on next page)



**A supervisor casually said something that stopped me in my tracks.**

**“Good is not a feeling.”**

감정이 아니야.” 그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던 기억이 난다. 그 한 문장은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명명하는 데 얼마나 작은 연습을 했는지 알게 해주었다. 나는 기능하고, 적응하고,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웠지만, 잠시 멈추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왜 그런지 스스로에게 묻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 깨달음은 감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종종 학습된 습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정에 언어나 공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게 된다.

청소년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되돌아보면, 감정은 종종 침묵, 유머, 짜증, 금단 또는 과도한 성취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감정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감정 표현이 항상 모델링되거나 장려되지 않는 환경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회피 또는 반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누군가의 이름 없이 감정을 관리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제 경험을 돌아볼 때, 청소년의 목소리는 아래에 있는 감정을 보고 느낄 때, 해결책보다 감정이 우선시 될 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커집니다. 우리의 감정적 인 경험이 교정보다는 호기심으로 충족 될 때,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는 더 건강하고 근거가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문화를 탐색하는 사람들에게 의도는 종종 생존, 적응, 성취 및 소속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정적 경험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때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느끼고, 반성하고, 실 수 있을 때, 새로운 미래는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를 넘나들며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감정을 다루는 것은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 성장 및 가능성이 시작되는 방법의 일부입니다.



“For those navigating multiple cultures, I’ve found that intention often begins with survival, adapting, achieving and belonging.”

면책 조항: 이미지는 이 이야기를 작성했거나 등장하는 실제 인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DAKOTA AGATOL

## 테이블에 앉기



자라면서 저는 중간에 살았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배려하는 숙소,  
노력한 사람들,  
하지만 내 조용한 부분은 항상  
그들은 영원한 나의 것이 아니었다.  
짐을 싸고 있는 모습에서 느꼈다.  
내가 얼마나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는지.  
숙소가 내 집처럼 느껴지도록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웃는 법을 배웠다.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하지만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무너질 만큼은 아니었다.  
나는 늘 찾아다녔다.  
집이 아님  
집이라는 단어가 있는 곳을 위해  
마침내 머무를 것입니다.  
두 번의 입양이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나는 믿으려고 애썼다.  
매번 말입니다.  
어쩌면 이곳이 영원히 시작되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안의 무언가는 결코 정착하지 못했다.  
절대로 숨을 내쉬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입양이 왔을 때  
희망이 내 손에서 연약하게 느껴졌다.  
내가 지킨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믿기 무서웠던 것.  
그러면  
영원히 조용히 다가왔다.  
서두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착실한  
나를 기다리던 그 무언가처럼  
찾아볼 줄도 모르기 훨씬 전부터.  
나의 영원한 가족.  
내 작업  
내가 선택한,  
그리고 나를 다시 선택하는 것  
모든 면에서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제 다른 느낌입니다.

빌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포만감이 느껴지고,

따뜻하게

참

그리고 제가 감사하는 것은

어떤 테이블보다 큼니다.

그 어떤 식사보다 큰

이보다 더 큰 어느 날.

바로 그들입니다.

엄마

사나운, 두려움 없는, 온화한 한꺼번에.

그녀가 보호하는 방식의 사자.

그녀가 위로하는 방식의 부드러운 일출.

그녀의 사랑은 속삭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서있고,

구부리기에 충분히 강한

치유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럽습니다.

우리 엄마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

그를 통해 흐르는 따뜻한 하와이 정신으로...

하지만 그 평화로운 고요함 아래에서

그는 꿈입니다

꾸준하고 충실하며 보호적인,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힘의 종류

그냥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나는 내가 감사하는 방식을 셀 수 없다.

그들의 사랑과 같은 사랑에 속하기 위해

떠나지 않는 사랑,

퇴색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음

연휴가 끝나면.

그리고 오늘 제 마음에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를 위한 것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그들의 삶을 영구적이지 않은 가방에 포장하는 것:

그밖에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예요.

나는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안다.

영원이 진짜인지 궁금해지기 위해,

항상 용감하다고 느끼기 위해

숙소에 머무르지 않는 곳.

하지만 이 말을 들으십시오.

Aunt Mary



DR. JAYDEE TUMAMBING HUGHES | ELLIE MENTAL HEALTH, 클리닉 디렉터

## A등급 멘토링

나는 한참 동안 줄을 섰다. 나조차도 발을 접지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 움직이는 선. 1.5세대 필리핀계 미국인으로서 필리핀에서 자라고 13살에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가 경험한 것이 인종차별, 여성혐오, 성차별,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나는 부모님께 분개했다. 래치키 아이이자 장남이며 형제자매를 책임지고 있다. 왜 다시 이곳으로 옮겼을까요? 집에는 가족, 관습,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맥도날드, 인앤아웃, 디스테인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야근하셨습니다. 그들의 꿈이 저에게 투영되면서 저는 미국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소속감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규범에서 벗어나세요.

청년 시절, 머릿속의 목소리는 상반되고 혼란스러웠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과 충고를 내면화된 증오와 구별할 수 없었다.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려던 젊은 엄마인 나는 정말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세대별 패턴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멘토를 만났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내 첫 번째 멘토는 보라색과 빨간색 잉크로 내 논문을 수정하고 여전히 A로 등급을 매긴 유색인종 여성이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마크와 제안된 편집은 비현실적인 기대가 아니라 잠재력에 주목하지 않고 자신을 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멘토링 아래에서 번창했고, 나 자신을 붙잡을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붙잡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나는 거인들의 어깨에 섰는데, 그 중 한 명은 5피트 7, 아버지는 5피트 7이었다. 이 어깨에서 나는 마침내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diyan ka nadapa, diyan ka tumayo - 그것이 당신이 떨어진 곳이고, 당신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는 그가 그냥 먼지를 털고 계속 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쉬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제 그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압니다. 마치 맨 아래에 A 등급이 있는 잉크로 표시된 내 서류를 멘토로부터 받는 것 같았다. 아빠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는 내가 할 줄 알았다. 그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앞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압박감이나 비현실적인 기대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억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굳히면서 기존의 관계는 더욱 굳어졌고, 내 자아 감각은 더 이상 오래된 접촉체와 함께 불안정하게 붙어있는 퍼즐 조각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내 머릿속의 목소리는 여전히 과거의 아픔을 고스란히, 그러나 내 존재를 지배하지 않는 틈새 속에서 울려 퍼진다. 내가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 도우미 그룹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초현실적입니다. 이제 구름과 의심 속에서도 감히 미래를 희망합니다.



면책 조항: 이미지는 이 이야기를 작성했거나 등장하는 실제 인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에린 케이스 (ERIN CASEY)

# 내 친구의 장소에서 차를 세우세요

My Friend's Place에서는 노숙자와 인종차별의 경험이 서로 깊게 교차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젊은이의 88%가 BIPOC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로 식별됨에 따라, 우리는 역압의 현재와 역사적인 영향이 노숙을 경험하는 유색인종 젊은이들이 불균형하고 체계적으로 소외되는 세상을 어떻게 초래했는지 직접 봅니다. 또한 BIPOC 젊은이들은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안전과 웰빙 의식을 악화시키는 일상적인 인종 기반 외상성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내 친구의 장소에서, 우리는 인종에 기반한 외상성 스트레스에서 치유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그 이름이 명명되고 검증되고 젊은이들이 지역 사회, 연결 및 기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연례 풀업 이벤트는 회복력과 인종차별과의 싸움을 강력하게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이러한 교차하는 문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젊은이들을 고양하고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대한 증거입니다. 풀업: 인종차별과의 싸움에서 유색인종 청소년을 축하하는 것은 2025년 직원, 이사회 멤버, 동창 및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젊은이들로 구성된 정의, 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 위원회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젊은 예술가에게 행사를 위한 디자인을 의뢰합니다. 작년에 Pull Up의 주제는 Backyard BBQ였고 아티스트는 Michael이라는 젊은 아티스트를 의뢰했습니다.

노숙자 속에서 기쁨의 순간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Pull Up은 우리가 봉사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기쁨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 날입니다. 올해는 특별한 식사, 라이브 DJ, 카니발 게임 및 덩크뱅크, 농구 대회, 메이크업 및 네일 워크숍, 포토부스 등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Pull Up 2025에서 가져온 것으로, 행사 케이크에 담긴 Michael의 디자인, 디자인과 함께 실크 스크린으로 된 티셔츠를 입은 참석자, Key라는 청소년 아티스트가 2025년에 처음으로 디자인한 것을 포함합니다.



# 더 나은 청소년 단편 영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과 동료들이 직면한 실제 경험과 문제에 영감을 받아 단편영화를 만든 **Better Youth**의 멘토입니다. 영화는 트라우마 극복, 정신 건강 문제, 위약 보호를 받는 젊은이와 같은 중요한 주제를 다루며, 모두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용기 있게 공유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단편 영화, 영화 예고편 및 영화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영화의 영화 포스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ing Of Passion](#)

[The Perfect Shoe 911](#)

[Universe Why?](#)

**MERSHANA KNIGHTON**

**RING OF PASSION**

Resilient. Ambitious. Self-Disciplined. A true fighter with grit and gloves.

A story about a determined woman that will inspire and educate future generations.

THE BETTER YOUTH.ORG FILM COHORT OF 2025 PRESENTS AN ORIGINAL SHORT DOCUMENTARY "MERSHANA KNIGHTON: RING OF PASSION"

EXECUTIVE PRODUCERS SYD STEWART SHAWN JACKSON DIRECTOR NAYELY BARRERA

FILM COHORT FACILITATORS & MENTORS KEN KERBS KRISTINA SULLIVAN INTERVIEWERS NAYELY BARRERA HENNESSY DIAZ EDITORS BORIS FUENTES KEN KERBS CINEMATOGRAPHERS NAYELY BARRERA BORIS FUENTES VALERIE HERNANDEZ HENNESSY DIAZ KEN KERBS ORIGINAL MUSIC BORIS FUENTES MALIK TATE AND BENSOUND.COM

<https://filmfreeway.com/RingOfPassion>

*The Perfect Shoe*  
A Film By Nayely Barrera

STARRING  
Emily Espinoza  
Angi Ali  
& Canvas

WHEN HER YOUTH WAS TORN APART, JOY, A DISTANT STAR, SHE NEVER STOPPED YEARNING FOR THE PERFECT PAIR.

THE BETTER YOUTH FILM COHORT PRESENTS A SHORT NARRATIVE FILM BY NAYELY BARRERA "THE PERFECT SHOE" EXECUTIVE PRODUCERS SYD STEWART SHAWN JACKSON FILM COHORT FACILITATORS AND MENTORS KENWELT J. KERBS KRISTINA SULLIVAN INTERVIEWER AND DIRECTOR NAYELY BARRERA COSTUME DESIGNER KENNETH TAYLOR STARRING EMILY ESPINOZA ANGI ALI & CANVAS FEATURING CHARANWINE JACKSON KRISTINA SULLIVAN SYD STEWART AND KENWELT J. KERBS EDITOR NAYELY BARRERA ASSISTANT DIRECTOR JAHON KALLPATRICK PRODUCERS NAYELY BARRERA KRISTINA SULLIVAN SET DESIGNER RICE SRAMADISE BORIS FUENTES AND CHRIS WATZROCK OPENING SHOTS BY BETTER YOUTH ADVISORS KRISTON BEJONGBO AND SHANT WEBSTER CINEMATOGRAPHERS RUC TCHOUMBA VALERIE HERNANDEZ BORIS FUENTES RUC TCHOUMBA VALERIE HERNANDEZ BORIS FUENTES MUSIC BY TAYLOR BELLINI SCRIPT SUPERVISORS KENNETH TAYLOR AND JAHON KALLPATRICK STILL PHOTOGRAPHER BORIS FUENTES MUSIC BY KENWELT J. KERBS CREDITS ART CREATED BY MATTHEW COLLADO A BETTER YOUTH FILM ORIGINAL 2021

<https://filmfreeway.com/ThePerfectShoe911>

Better Youth Film Cohort presents  
**Universe Why?**  
A Film By Hennesy Diaz

Trust. Love and Friendship. The will to live. He follows the "Why?"

starring  
Anthony Aquino  
Emily McCormick

THE BETTER YOUTH.ORG FILM COHORT PRESENTS AN ORIGINAL SHORT NARRATIVE FILM "UNIVERSE WHY?" BY HENNESSY DIAZ EXECUTIVE PRODUCERS SYD STEWART SHAWN JACKSON FILM COHORT FACILITATORS & MENTORS KEN KERBS KRISTINA SULLIVAN INTERVIEWER HENNESSY DIAZ EDITOR MATTHEW COLLADO COSTUME DESIGNER KENNETH TAYLOR STARRING ANTHONY AQUINO EMILY MCCORMICK CINEMATOGRAPHERS KENNETH TAYLOR ZE PABLO PELLER TYLER SULLIVAN COSTUME DESIGNER KENNETH TAYLOR CINEMATOGRAPHERS EMILY MCCORMICK AND CHRIS WATZROCK OPENING SHOTS BY BETTER YOUTH ADVISORS KRISTON BEJONGBO AND SHANT WEBSTER CINEMATOGRAPHERS RUC TCHOUMBA VALERIE HERNANDEZ BORIS FUENTES RUC TCHOUMBA VALERIE HERNANDEZ BORIS FUENTES MUSIC BY TAYLOR BELLINI SCRIPT SUPERVISORS KENNETH TAYLOR AND JAHON KALLPATRICK STILL PHOTOGRAPHER BORIS FUENTES MUSIC BY KENWELT J. KERBS CREDITS ART CREATED BY MATTHEW COLLADO A BETTER YOUTH FILM ORIGINAL 2021

<https://filmfreeway.com/UniverseWhy>

# 마음의 음소거를 해제하십시오: 의도, 연결 및 청소년이 주도하는 가능성



Bassett High School에서 의도는 종종 학생들이 서로에게 묻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서 HOSA (미국의 건강 직업 학생)의 일원인 보건 아카데미 학생들이 만들고 진행하는 학생 주도 정신 건강 캠페인인 **Unmute Your Mind**가 성장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캠퍼스 생활의 일상적인 리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학생들은 소셜 미디어, 만화 스타일의 비주얼, 참여를 요구하기보다는 참여를 유도하는 장난스럽고 저압적인 활동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캠페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조는 의도적입니다. 때로는 다채롭고 친절하며 조용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캠페인은 가장 작은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1교시가 시작될 때, 학생들은 연결을 촉발하도록 고안된 빠른 활동을 위해 웃기를 나눠주었다. 초대는 간단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사람에게 빨래집게를 선물하세요. 연설 금지. 설명이 없습니다. 인간이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그 작은 몸짓은 침묵을 깨고, 벽을 낮추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학생 중심의 참여는 동료 관계 이상의 것을 형성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문을 열었습니다. 웰니스 수요일 동안 웰빙과 형평성에 중점을 둔 학생 중심의 행사인 바셋 고등학교 건강 아카데미는 이스트 밸리 메디컬 센터와 연결되었습니다. 간략한 소개로 시작된 것이 의미 있는 파트너십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연결은 학생들이 의료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이전에 보지 못했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성장의 대부분은 창의력과 보살핌으로 **Unmute Your Mind**를 전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 학생 **Arianna Franklin**의 리더십과 학생의 비전을 지속적인 기회로 전환하는 데 계속 도움을 주는 교사 **Rodriguez**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의 목소리가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지지를 받을 때 가능한 것을 함께 반영한다.

마음의 음소거를 해제하면 의도가 항상 시끄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때로는 학생들 사이에 조용히 지나가는 빨래집게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종종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연결의 순간, 창의력 및 용기가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미래를 풀기 위해 배우는 젊은이들에 의해 주도됩니다.



SASHA MCCULLOM

## 관용의 창

지금 파란색 파워에이드를 마시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념비적인 위업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마지막으로 파란색 파워에이드를 만났을 때, 나는 위기 센터에서 유일한 두 대의 TV 중 하나에서 Avatar the Last Airbender 를 보면서 치킨 너겟과 마카로니를 먹고있었습니다. 치킨 너겟은 꽤 쉽게 내려가는 것 같았지만, 나는 여전히 슬픔에 허덕이고 있었다. 사실 슬픔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다.

그것은 몇 년 동안 한입에 물려 나를 잡아먹었다. 다행히도 슬픔이 풀리기 전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

슬픔은 거의 몰랐습니다. 사실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기 센터에서 풀려난 후 매일, 매주, 매월, 나는 가장 큰 사랑/증오 관계를 가진 게임의 규칙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게임, 불과 1년 전만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게임. 나를 괴롭히는 데 사용 된 게임 보드에서 가장 작은 동작:

샤워를 하는 것은 100개의 타일을 가로질러 이동해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은 1,000건을 여행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어느 날 한 타일에서 다음 타일로 건너갔는데 그것이 가장 쉽게 느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센터에 직접 제출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숨이 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더 이상 답답한 방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이 밝아왔다. 내 관용의 창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갈라진 틈이 열렸지만, 그 신선한 공기가 내게 필요한 전부인 것 같았다. 주간 치료 세션이 집안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약을 복용하는 것은 더 이상 쓸모없는 식도 운동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샤워는 내 존재의 괴리 대신 내 하루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나는 인생의 타일 게임을 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한 타일에서 다음 타일로 미끄러졌다!

내 관용의 창문이 활짝 열렸다.

지난 6월 어느 화창한 날, 나는 고개를 들어 마침내 최적의 구역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024년 12월 무작위로 우울증을 앓는 날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제가 한 일 중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 망할 것 같았다. 처음으로 입원해야 하는 것이 끝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은 hypo-와 hyperarousal에 대한 나의 승리의 시작이었다. 몇 달과 치료 세션이 진행됨에 따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건강한 방식으로 삶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관용의 창을 다시 열면 더 이상 벽차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 인생 게임은 극히 어려움 모드에서 쉬움 모드로 바뀐 것 같았다.

지금 활짝 열린 관용의 창이 만들어 놓은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기 시작했다.

정신병동에서 파란색 파워에이드를 마시면서, 언젠가 삶이 다시 쉬워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저는 제 자신의 과거 버전이 그렇게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렇게 기뻐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불과 일 년 만에, 나의 절망은 그것이 최종 형태에 도달할 때까지 거듭 변했다. Joy.

2025년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저는 한 해 동안 제가 건너온 모든 인생 타일을 돌아보았습니다.

확실히 보드를 몇 번 뒤집을 뻔했지만 여전히 성공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고 사샤의 옛 생활 방식을 은퇴했다.

나는 새해에 울려 퍼지는 관용의 창문에 고개를 숙였다.

예전처럼 그녀를 욕하는 대신, 나는 이제 2024년 12월 사샤가 정신병동에서 파란색 파워에이드를 마실 수 있을 만큼 용감한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지금 나를 볼 수 있다면, 지난 한 모금에서 이번 한 모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는지 당황했을 것이다.

# 청소년의 눈으로 보는 미래

청소년의 관점은 미래가 단순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형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회복력, 성장 및 자기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신 건강, 정체성 및 웰빙에 대한 신선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힘과 창의력을 시험하는 도전을 헤쳐 나갑니다. 멘토링, 지역 사회 지원 및 세대 간 학습을 통해 지도, 연결 및 목적 의식을 찾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의도가 어떻게 가능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의적인 표현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강력한 방식으로 증폭시킵니다. 예술, 시, 음악 및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통해 젊은이들은 정체성을 탐구하고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며 희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작품은 세상을 보고, 큰 꿈을 꾸고, 자신과 타인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창구가 됩니다.

청소년의 말을 듣는 것은 그들의 말을 듣는 것 이상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배우고, 그들의 성취를 축하하고, 그들의 여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신 건강, 자기 발견 및 지역 사회 변화가 깊이 얽혀 있으며 모든 젊은이들이 주변 사람들의 성장과 가능성을 고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의도를 존중하고, 가능성을 포용하며, 창의성과 용기, 희망으로 형성된 미래를 상상합니다.



면적 조항: 이미지가 이 이야기를 작성했거나 등장하는 실제 인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 의도와 가능성: 청소년의 관점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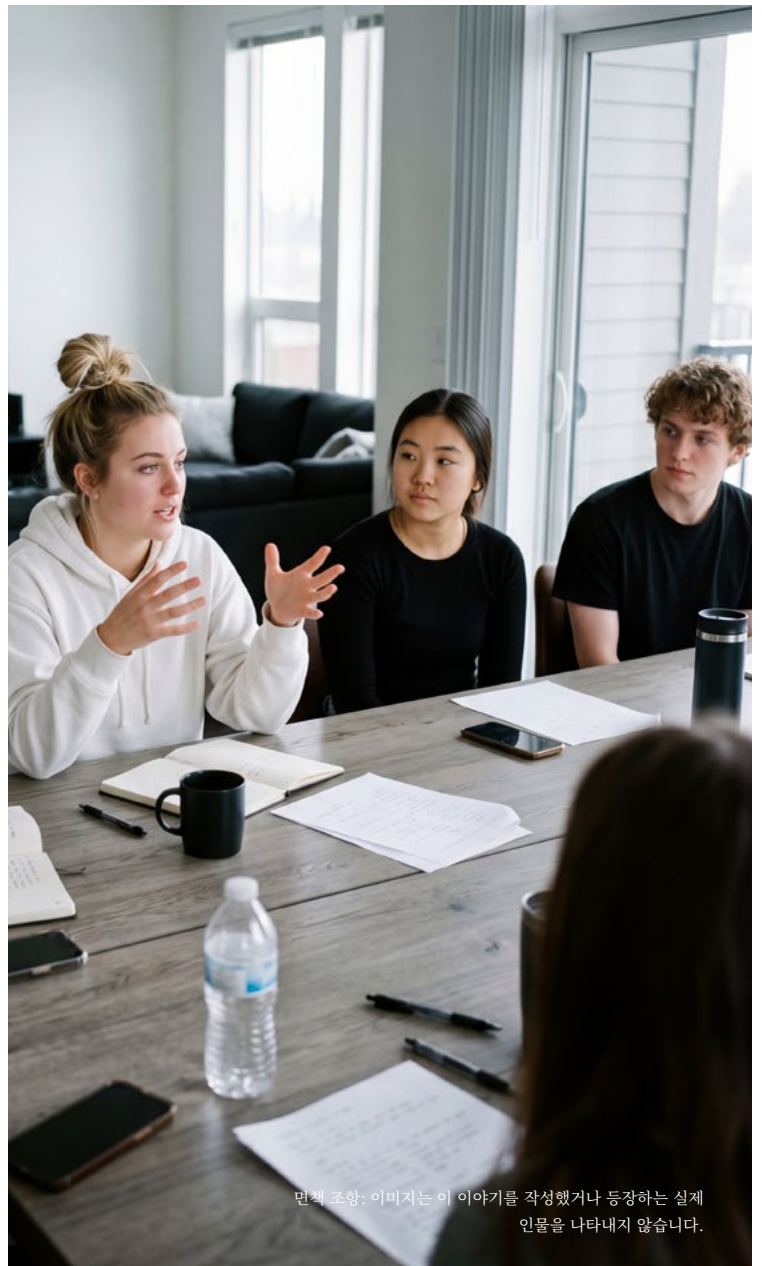
노숙자를 건디는 모든 사람은 노숙자 대응 시스템 (좋은 것, 나쁜 것, 심지어 중간 어딘가) 에 대한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3년 11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노숙자 이니셔티브 (Los Angeles County Homeless Initiative, 현 노숙자 서비스 및 주택부 [HSH]) 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HUD) 로부터 청년 노숙자 제도 개선 (Youth Homelessness Systems Improvement, YHSI)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 보조금은 살아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와 전문성을 주류 카운티 시스템에 집중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YHSI 작업의 중심에는 교차 시스템 리더십 테이블 (CSLT) 이 있습니다. 교차 시스템 리더십 테이블은 살아있는 경험을 가진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형성하는 중심에 배치합니다. 이 작업은 청소년의 관점이 지혜와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변화는 이러한 목소리가 정책, 관행 및 투자를 이끌 때 발생합니다.

YHSI는 정신 건강 및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부서를 포함한 증가하는 시스템 파트너 네트워크와 함께 14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모두 세대 간 학습, 솔루션 개발 및 구현, 책임 체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와 파트너는 함께 성장, 회복력 및 자기 발견의 살아있는 경험의 렌즈를 통해 정책 및 시스템 개혁으로 이어지는 정직한 대화에 참여하는 동시에 노숙자를 탐색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진정한 장벽에 직면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YHSI는 구체적인 시스템 변화에 대한 청소년 통찰력을 번역했습니다. 이 표에는 지출 계획 측정, 노숙자 방지 장치 및 집중 사례 관리 서비스의 전환기 청소년 (TAY) 확장, HSH 조직도 및 추가 교차 시스템 우선 순위와 관련된 고급 권장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각 권장 사항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지원의 모습에 대한 청소년의 정보에 입각한 이해를 반영합니다.

앞으로 YHSI는 대규모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높이고 청소년 노숙을 예방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향후 정책 결정을 알리기 위해 청소년 주도 욕구 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 노력은 청소년 렌즈를 통해 정신 건강, 안정성 및 존엄성을 중심에 두는 동시에 시스템 간 격차와 기회를 식별합니다. 이와 동시에 YHSI는 신뢰, 자율성 및 젊은이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전문가라는 믿음에 뿌리를 둔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권장 사항과 시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하고, 젊은이들이 지원받고, 자원하고, 변형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YHSI는 스토리텔링, 창의적인 표현 및 시스템 변경 작업을 통해 청소년의 비전과 희망을 위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보다 반응적이고 인간적인 시스템을 향한 경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이어질 때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적 조항: 이미지는 이 이야기를 작성했거나 등장하는 실제 인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 제출 기한 및 정보

## 이해관계자 뉴스레터 2026년 2분기

함께 모든 목소리가 소중하고, 모든 이야기가 중요하며,  
다양성이 공유되는 공간을 만들자.

2026년 두 번째 분기 발행이 오는 6월에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LACDMH는 여러분의 삶과 일에서 성장, 추진력 및 지역 사회 연결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되돌아보도록 초대합니다.

이야기, 작품, 성찰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뉴스레터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출은 어떤 형식으로든 환영하며, 모든 콘텐츠는 LA 커뮤니티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 (예: SALT, UsCC, CCC, Health Neighborhoods, Faith-Based Partners, Peer Counsel) 으로부터 공평하게 요구됩니다.

---

다음 호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웰빙의 여름: 교감, 돌봄, 지역사회

실용적인 웰니스 팁, 현지 자료, 야외 힐링 및 커뮤니티 이벤트. 모든 목소리가 소중히 여겨지고, 모든 이야기가 중요하며, 다양성이 공유되는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콘텐츠 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메일 및 기타 채널을 통해 공유되지만, 제출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 제출 기한

**4월 30일 목요일**

콘텐츠 제출 요청이 열립니다

**5월 15일 금요일**

콘텐츠 제출 기한

# 2026년 2분기 다양성 및 다 문화 행사 일정

ARISE 부서 - 문화 역량 부서 및 문화 역량 위원회 제공

## April

- |        |                                  |        |   |
|--------|----------------------------------|--------|---|
| 4월 1일  | - 9일 - 유월절                       | 4월 13일 | - 14일 - 욘 하쇼아 (유대인 대학살 추모일)                       |
| 4월 2일  | -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UN)              | 4월 22일 | - 국제 지구의 날  |
| 4월 2일  | - 시즈다 베다르 (자연의 날-이란 축제)          | 4월 22일 | - 행정 전문가의 날                                       |
| 4월 3일  |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기념/성<br>금요일(기독교)   | 4월 24일 | - 아르메니아 집단학살 추모의 날                                |
| 4월 4일  | - 어린이날 (타이완, 중화민국)               | 4월 24일 | - 25일 - 국가별 모임 (아메리카 원주민)                         |
| 4월 5일  | - 청명 축제 (중화민국, 타이완의<br>조상들을 기념함) | 4월 25일 | - <b>Show Your Mettle Day</b><br>(미국 사지 손실 환자 지원) |
| 4월 5일  | - 부활절 (기독교인)                     | 4월 25일 | - 세계 치유의 날  |
| 4월 6일  | - 국제 무성애의 날 (LGBTQ +)            | 4월 26일 | - 전국 레즈비언의 날                                      |
| 4월 7일  | - 세계 보건의 날 (전 세계)                | 4월 29일 | - 세계 소원의 날 (전 세계)                                 |
| 4월 10일 | - 전국 청소년 HIV 및 에이즈<br>인식의 날 (미국) | 4월 30일 | - 어린이날 (멕시코 어린이 기념일)                              |
| 4월 10일 | - 침묵의 날 (LGBTQ +)                |        |   |
| 4월 11일 | - 파킨슨병 국제 인식의 날 (전<br>세계)        |        |   |

### 4월

- |                         |                                 |
|-------------------------|---------------------------------|
| 알코올 인식의 달               | 전국 아동 학대 예방의 달                  |
| 아랍계 미국인의 달              | National Donate Life Month (미국) |
| 자폐증 인식 및 수용의 달          | 국립 소수자 보건의 달                    |
| 다양성의 달 기념하기             | 국립 작업 치료의 달                     |
| 커플 감사의 달                | 전국 성폭력 인식 및 예방의 달               |
| 지구의 달                   | 전국 자원봉사의 달                      |
| 감정 과식 인식의 달             | 미국 전역의 재향 군인 마비 월 (미국)          |
| 대량학살과 인권 인식의 달          | 타탄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         |
| 국제 흑인 여성 역사의 달          | 고환암 인식의 달                       |
| 사지 손실 인식의 달 (미국)        | 여성 역량 강화의 달                     |
| 전국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피트니스의 달 |                                 |

# 2026년 2분기 다양성 및 다문화 행사 일정

ARISE 부서 - 문화 역량 부서 및 문화 역량 위원회 제공

## May

- 5월 1일 - 부처님 오신 날 (불교)      다양성의 날 (전 세계)
- 5월 5일 - 싱코 데 마요 (멕시코계 미국인)      5월 21일 - 글로벌 접근성 인식의 날 (Gaad, 5월 셋째 목요일)
- 5월 5일 - 어린이날 (한국어)
- 5월 5일 - 세계 천식의 날 (전 세계)      5월 21일 - 23일 - 샤부웃 (유대인 휴일) (2026년)
- 5월 7일 - 국가 기도의 날 (미국)
- 5월 7일 - 전국 어린이 정신 건강 인식의 날 (미국)      5월 22일 - 하비 밀크 데이 (LGBTQ +)
- 5월 8일 - 세계 적십자사의 날 (전 세계)
- 5월 10일 - 어머니의 날 (미국)      5월 23일 - 24일 - 바브 선언 (1844년 바브의 발표를 기념하는 바하이 축제)
- 5월 16일 - 전국 성소수자 노인의 날
- 5월 17일 - 국제 동성애 혐오, 트랜스 혐오, 혐오 반대의 날 (LGBTQ +)      5월 24일 - 전국 형제의 날
- 5월 21일 - 정신 건강 행동의 날
- 5월 21일 - 27일 - 이드 알 아드하 (이슬람교의 희생 축일)
- 5월 21일 -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      5월 28일 - 29일 - 바하올라 (바하이) 승천
- 5월 30일 - 현충일 (미국) 2026년

### 5월

- 아시아계/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
- Better Speech and Hearing Month (미국)
- 아이티 문화유산의 달
- 인도 문화유산의 달
- 유대계 미국인의 달
- 정신 건강 인식의 달 (미국)
- 이동성 인식의 달 (미국)
- 국립 간호원의 달
- 미국 노인의 달 (미국)
- 남아시아-태평양 미국 문화유산의 달

# 2026년 2분기 다양성 및 다문화 행사 일정

ARISE 부서 - 문화 역량 부서 및 문화 역량 위원회 제공

## June

- |        |   |                                   |        |   |   |
|--------|---|-----------------------------------|--------|---|---|
| 6월 2일  | - | 아메리칸 인디언 시민의 날 (미국)               | 6월 18일 | - | 자폐인의 날 (미국)   |
| 6월 5일  | - | HIV 장기 생존자 인식의 날                  | 6월 19일 | - | 6월 10일 (아프리카계 미국인)                                  |
| 6월 7일  | - | 국립 암 생존자의 날 (6월 첫 번째 일요일)         | 6월 19일 | - | 드래곤 보트 페스티벌 (타이완, 중화민국)                             |
| 6월 7일  | - | National Children's Day (미국)      | 6월 20일 | - | 세계 난민의 날  |
| 6월 12일 | - | 사랑하는 날 (인종 간 관계 및 가족)             | 6월 21일 | - | 리타 서머 솔스티스 (이교도)                                    |
| 6월 12일 | - | 나이트클럽 총격 사건 추모의 날 (LGBTQ +)       | 6월 25일 | - | 7월 1일 - 헬렌 켈러 청각 장애인 시각장애인 인식 주간 (미국)               |
| 6월 13일 | - | 국제 알비노 인식의 날 (UN)                 | 6월 25일 | - | 26일 - 아슈라 (무하람의 열흘째 되는 날에 열리는 이슬람 명절)               |
| 6월 14일 | - | 경주 화합의 날                          | 6월 26일 | - | 세계 용서의 날  |
| 6월 14일 | - | 프라이드 데이 (도시와 국가, LGBTQ + 에 따라 다름) | 6월 27일 | - | 아프리카 청각 장애인 교육의 아버지로 알려진 앤드류 포스터의 생일 (1925년 6월 27일) |
| 6월 15일 | - | 전국 노인 학대 인식의 날                    | 6월 27일 | - | 미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날                                  |
| 6월 16일 | - | 17일 - 히즈리 신년 (무슬림)                |        |   |   |

### 6월

알츠하이머 및 뇌 인식의 달 (글로벌)  
흑인 음악의 달  
노인 학대 인식의 달  
이민 문화유산의 달  
남성 건강 인식의 달  
카리브해 국립 아메리칸 헤리티지의 달  
프라이드의 달 (LGBTQ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보호소 인식의 달에 고양이 입양하기

# About All of Us

## CULTURAL COMPETENCY COMMITTEE

The Cultural Competency Committee (CCC) serves as an advisory group for the infusion of cultural competency in all of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LACDMH) operations. The CCC advocates for the needs of all cultural groups. Its membership includes the cultural perspectives of consumers, family members, advocates, directly operated providers, contracted providers, and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Additionally, the CCC considers the expertise from the Service Areas' clinical and administrative programs, frontline staff, and management essential for sustaining the mission of the Committee. The CCC is led by two Co-Chairs who are community representatives and elected annually by members of the Committee.

[dmh.lacounty.gov/ccu/ccc](https://dmh.lacounty.gov/ccu/ccc)



## ACCESS FOR ALL USCC

The Access for All USCC subcommittee was established under the original Mental Health Services Act (MHSA), now known as the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BHSA),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mental health access and to produce stakeholder priorities which will advise LACDMH's action planning toward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its services and partnerships to better engage underserved and marginalized cultural and ethnic communities in Los Angeles County

<https://dmh.lacounty.gov/about/mhsa/uscc/access-for-all-uscc/>



## AMERICAN INDIAN/ALASKA NATIVE (AI/AN) USCC

The American Indian/Alaska Native (AI/AN) Underserved Cultural Communities subcommittee was established under the original Mental Health Services Act (MHSA), now known as the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BHSA), with the goal to reduce disparities and increase mental health access and to produce stakeholder priorities which will advise LACDMH's action planning toward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its services and partnerships to better engage underserved and marginalized cultural and ethnic communities in Los Angeles County. According to the 2010 USA Census Bureau report, Los Angeles County is the home to the largest AI/AN population, which is approximately 160,000 residents.

The AI/AN UsCC subcommittee provides LACDMH with community-driven and culturally specific capacity-building project recommendations and/or project concepts for implementation to increase mental health access, awareness, promotion, and decrease stigma with the ultimate goal to reduce cultural and ethnic disparities in access to care and service delivery.

<https://dmh.lacounty.gov/about/mhsa/uscc/american-indian-alaska-native-ai-an-uscc/>



## ASIAN AND PACIFIC ISLANDER (API) USCC SUBCOMMITTEE

The Asian Pacific Islander (API) UsCC subcommittee was established under the original Mental Health Services Act (MHSA), now known as the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BHSA),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mental health access and to produce stakeholder priorities which will advise LACDMH's action planning toward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its services and partnerships to better engage underserved and marginalized cultural and ethnic communities in Los Angeles County. The API UsCC subcommittee provides LACDMH with community-driven and culturally specific capacity-building project recommendations and/or project concepts for implementation to increase mental health access, awareness, promotion, and decrease stigma with the ultimate goal to reduce cultural and ethnic disparities in access to care and service delivery.

[dmh.lacounty.gov/about/mhsa/uscc/asian-pacific-islander-api-uscc](https://dmh.lacounty.gov/about/mhsa/uscc/asian-pacific-islander-api-uscc)

<https://dmh.lacounty.gov/about/mhsa/uscc/asian-pacific-islander-api-uscc/>



### **BLACK AND AFRICAN HERITAGE USCC**

The Black and African Heritage Underserved Cultural Communities (UsCC) subcommittee was established under the original Mental Health Services Act (MHSA), now known as the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BHSA), with the goal to reduce disparities, increase mental health access, and to produce stakeholder priorities which will advise LACDMH's action planning toward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its services and partnerships to better engage underserved and marginalized cultural and ethnic communities in Los Angeles County.

This subcommittee provides LACDMH with community-driven and culturally specific capacity-building project recommendations and/or project concepts for implementation to increase mental health access, awareness, promotion, and decrease stigma with the ultimate goal to reduce cultural and ethnic disparities in access to care and service delivery.

<https://dmh.lacounty.gov/about/mhsa/uscc/black-african-heritage-uscc/>



### **EASTERN EUROPEAN / MIDDLE EASTERN (EE/ME) USCC**

The Eastern European Middle Eastern (EE/ME) USCC subcommittee was established under the original Mental Health Services Act (MHSA), now known as the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BHSA),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mental health access and to produce stakeholder priorities which will advise LACDMH's action planning toward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its services and partnerships to better engage underserved and marginalized cultural and ethnic communities in Los Angeles County.

The EE/ME UsCC subcommittee provides LACDMH with community-driven and culturally specific capacity-building project recommendations and/or project concepts for implementation to increase mental health access, awareness, promotion, and decrease stigma with the ultimate goal to reduce cultural and ethnic disparities in access to care and service delivery.

<https://dmh.lacounty.gov/about/mhsa/uscc/eastern-european-middle-eastern-eme-uscc/>



### **LATINO USCC**

The Latino UsCC subcommittee was established under the original Mental Health Services Act (MHSA), now known as the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BHSA),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mental health access and to produce stakeholder priorities which will advise LACDMH's action planning toward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its services and partnerships to better engage underserved and marginalized cultural and ethnic communities in Los Angeles County.

The Latino UsCC subcommittee provides LACDMH with community-driven and culturally specific capacity-building project recommendations and/or project concepts for implementation to increase mental health access, awareness, promotion, and decrease stigma with the ultimate goal to reduce cultural and ethnic disparities in access to care and service delivery.

<https://dmh.lacounty.gov/about/mhsa/uscc/latino-uscc/>



### **LGBTQIA2-S USCC**

The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Questioning, Intersex, Asexual, Two-Spirit (LGBTQIA2-S) USCC subcommittee was established under the Mental Health Services Act (MHSA), now known as the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BHSA),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mental health access and to produce stakeholder priorities which will advise LACDMH's action planning toward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its services and partnerships to better engage underserved and marginalized cultural and ethnic communities in Los Angeles County.

The LGBTQIA2-S UsCC subcommittee provides LACDMH with community-driven and culturally specific capacity-building project recommendations and/or project concepts for implementation to increase mental health access, awareness, promotion, and decrease stigma with the ultimate goal to reduce cultural and ethnic disparities in access to care and service delivery.

<https://dmh.lacounty.gov/about/mhsa/uscc/lgbtqia2-s-uscc/>



# Disclosures and Acknowledgments

## MENTAL HEALTH AND WELLBEING RESOURCES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LACDMH) supports the wellbeing of our County residents and communities. The LACDMH Help Line is available 24/7 to provide mental health support, resources and referrals at: 800-854-7771. Additional LACDMH resources are available at: [dmh.lacounty.gov/get-help-now](https://dmh.lacounty.gov/get-help-now).

988 Suicide & Crisis Lifeline: Call or Text 988 or chat online at [988lifeline.org](https://988lifeline.org)

Crisis Text Line: Text "LA" to 741741 or visit [crisistextline.org](https://crisistextline.org)

CA Peer-Run Warm Line: Call 855-600-WARM (9276) or visit [calhope.org](https://calhope.org)

iPrevail: Access a Unique Mental Health Network on Any Device with Interactive Lessons, Peer Support Chats, and Community Groups All in One Place. Visit: [lacounty.iprevail.com](https://lacounty.iprevail.com)

Talk to Teen Line's trained teen listeners: Call 800-852-8336 Nationwide (6 - 10 PM PST), text "Teen" to 839863 (6 - 9 PM PST) or visit [teenline.org](https://teenline.org)

Was this newsletter forwarded to you? Make sure you don't miss the next issue.

Subscribe here: <https://dmh.lacounty.gov/subscrib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us at: [DMHCC@dmh.lacounty.gov](mailto:DMHCC@dmh.lacounty.gov)